

거룩한 자 되라

789. 오직 성인만이 세상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직 성인만이 하느님과 세상을 마주 보게 하고 신비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오직 성인, 성인만이 의식을 자극하고, 방향을 바꾸고, 새롭게 하며, 주변환경을 정화시킵니다.

790. 독수리처럼 불타는 눈빛으로 높은 곳을 바라보며, 성덕을 향해 새로운 힘으로 날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성인을 필요로 합니다. 오직 성인들만이 세상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791. 오직 성덕만이 영혼의 타는듯한 목마름을 채워 줄 수 있습니다. 성덕 아니면 죽음을...! 성덕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산단 말입니까?

792. 목숨을 바쳐서라도 성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영혼들이 요새 안에 끝까지 항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즐기치게 나를 재촉합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도 있습니다.

깊은 침묵 속에 사라지는, 드러나지 않는 회색 빛 무명의 순교를 순간순간 살아가는 타오르는 햇불이 되어 우리의 거룩한 도성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대는 평범한 색조 속으로 사라지는 이 무명의 순교에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순교가 되어야 합니다. 고독 속에 살며 말없이 잠자코 죽을 줄 알기 위해서는 용감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 모든 것을 항구한 미소 안에 묻어둔 채 사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793. 우리 아버지 하느님은 거룩하시고 우리의 종으신 어머니도 거룩하시며 자모이신 교회도 거룩하시고 수많은 우리 형제들이 성인 성녀들이니 우리 가족은 성인 가족입니다. 그러니 성덕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세상 앞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직 모든 이를 위한 지하수, 아니면 혈관 주사가 되어 살아야 합니다.

794. 시작은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끝맺음은 성인들이 합니다. 절대 도중 하차 하지 마십시오. 저 높은 정상에 그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곳은 항상 황혼 빛으로 불타오릅니다.

795. 공동 성덕을 향해, 높은 곳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 간다는 것은 엄청난 순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산채로 죽음을 맛보는 것은 참으로 크나큰 순교입니다. 아! 얼마나 큰 순교인지 모릅니다.

796. 주님의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완벽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라고 간절히 청합니다. 이 기도를 제대로 산다면 우리 성덕의 차원이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797. 영혼이 하느님 안에 잠길 수 있도록 해방시켜 주지 못하는 일체의 모든 것은 시간 낭비이며, 에너지 소모요, 성덕을 가지고 장난 하는 것입니다.

798. 그분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대는 이미 이 사실을 체험하였으니 더 이상 뒤를 돌아 보지 말고 앞으로,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모두가 그대의 전진을 필요로 합니다. 그대의 성덕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기에 모두가 그대의 성덕을 호소합니다.

799. 한시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늘 열정적인 삶의 리듬을 지탱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어렵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성화의 비결이 있으며 성인들이 이룩한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800.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한 성인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한 성인입니다. 따라서 사랑이 결핍될 때는 모든 것이 허사가 됩니다.

801. 하느님과의 은밀한 만남은, 완전한 합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변화 시키고, 향주덕의 꽃을 피워내며, 우리 삶이 참된 성덕의 맛을 내게 하는 윤리덕을 자아내야 합니다.

802. 성덕은 역사의 냉기를 뜨겁게 하는 저항할 수 없는 힘입니다.

803. 활기차고 뜨겁게, 보다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참된 가치가 있습니다. 성인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영혼입니다.

804. 성인 품에 올릴 성인들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서 성인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니, 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어떻게?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 종일 거기, 이른 아침 타오르는 불길과도 같은 하느님의 불 가마 앞에 머무십시오. 지나간 일이나 앞으로 다가올 일을 바라보고 싶은 유혹에 빠지지 말고 그대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 바로 이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그 앞에 머물며 그대의 가련한 지푸라기를 그 안에 던지십시오. 그 불길에 닿는 즉시 타오를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머물며 그대 믿음의 제사를 함께 봉헌하십시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 불이 그대의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정말이지 믿으십시오. 그대로부터 나오는 것이 약하면 약할수록 더욱 거세게 그것을 태워 버릴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805. 높은 곳을 열렬히 추구하십시오. 평범함에서 벗어 나십시오. 편안한 삶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성덕, 이것이 그대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을 맞으려 나가십시오. 그분께서는 결코 그대에게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806. 우리는 성인이 될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위험 속에 빠져 버립니다.

807. 성인들은 하나님의 깊은 진리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또한 그 진리에서 흘러나오는 온유, 기쁨, 양선, 부드러움, 순명, 사랑 안에서도 만나게 됩니다.

하루, 또 하루를 굳세게 항구하는 것이 성덕의 비결입니다.

809.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가련한 수녀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덕, 그분의 영광을 위해, 영혼들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잊어버리는 성덕입니다.

809. 사람들이 우리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타오르는 분향처럼 그분 옥좌까지 오르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를 태우시도록 맡겨드립니다. 세상을 정화시키는 거룩한 연기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

습니다.

810. 성덕이 우리를 재촉합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은 점점 더 강해지고, “조금 더, 조금 더”, 하시는 신비스런 그 외침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충실에 달려 있습니다.

811. 하느님의 교회는 성인들을 요구합니다. 그대도 원합니까? 그렇다면, 단 일분도 지체하지 마십시오.

812. 영원한 대사제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에 감사 드리십시오. 우리의 성덕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 새로운 사제들이 탄생하게 하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813. 성덕이란 참으로 섬세하고도 심오하며 또 엄숙한 것입니다. 조금 힘들겠지요. 조금 힘들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손이 우리를 떠받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짐은 그분이 지고 가십니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814. 성녀가 되고 싶다면,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서두르십시오. 사랑이신 분께서 그대를 기다리시는데 그분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의 삶을 온전히 내어줄 시간이 되었습니다.

815. 많은 사람이 시작하지만 끝맺음은 성인들이 합니다. 사랑의 오솔길을 한걸음, 한걸음 따라가며 끝맺는 것입니다.

816. 노련한 사냥꾼처럼 한 순간도 방심치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성화시키는 크고 작은 사냥감들을 하나도 놓쳐서는 안됩니다.

817. 성덕은 영웅들의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는 대단한 진실성이 요구됩니다. 우리 이것을 향해 나아갑시다.

818. 서두르십시오. 하느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시간은 쉬지 않고 흐르며 영원은 성큼, 성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느님의 눈길이 한낮의 태양처럼 강그리 요구하며 납덩이처럼 영혼 위에 쏟아져 내립니다. 그리고 영혼이 남김없이 내어줄 것을 호소합니다.

819. 올해는 성덕을 향하여 나가는 결정적인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직도 죽음을 각오한 채 도약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투신하지 않는 것입니까? 달려가십시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820. 저는 성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은 공허할 뿐입니다. 행동 없이 말하는 것보다 차라리 말없이 있는 것이 낫습니다.

821. 오, 얼마나 성덕을 목말라하는지! 오직 이 물을 마실 때에 완전한 행복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822. 성덕은 봉헌된 영혼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성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수도서원과 그에 따르는 희생들, 나아가 수도생활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덕, 그분께서 성덕을 호소하십니다. 나무에 매달리신 그분께서 그것을 호소하십니다. 타락한 가엾은 인류를 구원하려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부서지고 유혈이 낭자한 그분께서 성덕을 호소하십니다.

823. 성격이 강합니까? 좋은 일입니다. 바오로 성인도 그랬고 성 베드로와 성녀 카타리나,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도 그랬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처럼 강한 성격을 소유한 이들은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을 치러야 하겠지만 동시에 하려고만 한다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의 에너지 전부를 가장 높은 고지를 향해 투자 하십시오. 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성인이 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고, 쪼개지고 나뉘지는 빵이 되고 모든 이의 모

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824. 알고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그대를 구원하고 또 성인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대가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대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시고 당신의 힘과 사랑과 견고함을 건네 주십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니 이제 남은 것은 그대도 원하는 것뿐입니다. 용감 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에 응답 하십시오.

825. 원하는 것, 이는 성덕에 있어 꺾을 수 없는 무기입니다. 부자가 재화를, 용사가 승리를 탐하듯이 원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원하셨던 것처럼 원해야 합니다.

“원했지, 원했었는데”식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로 이어지는 “원합니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갈망을 찬란한 현실로 바꾸어 놓는 강하고도 힘있는 원함이 있어야 합니다. “원합니다”. 이 한 마디 말로 가난한 영혼이 사랑의 거인으로 탈바꿈합니다.

826. ‘주님의 기도’ 안에 성덕의 위대한 신비들이 간직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선물하신 이 기도의 내면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들어가 보십시오. 굉장한 신비가 담겨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소서” 하늘나라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이 거룩한 기도의 한 가운데에 하느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아버

지의 나라가 오시며..." 하느님의 뜻을 생활에 옮길 때 하느님의 나라가 도래합니다

827. 굳세고 용감하며 감미로운 성 도미니코의 정신이 여러분 안에 계속하여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삶은 교회에 대한 사랑, 기도에 대한 열정, 살아있는 관상, 타인을 위한 무조건적인 헌신, 모두를 위해 자신을 잊어버린 삶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타오르는 하느님의 불꽃이었습니다.

나도 그 불꽃, 그 신비, 그 사랑으로 살기를 얼마나 바라고 꿈꾸는지 모릅니다.

828. 성령께서는 영혼을 성화시키는 전문가이십니다. 그분의 사명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완성하고 인간이라는 소우주 안에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영혼 안에 거룩한 느낌을 불러 일으키시고 우리 존재 가장 깊은 곳에 당신 친히 심어 놓으신 사랑의 갈망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새로운 시각을 일깨워주시고 영혼 안에 초자연적인 감각을 불러 넣으시어 그를 변화시키고 성화시키고 신화시킵니다.

만일 영혼이 그분께 맡겨 드린다면, 성삼의 신비 안에 잠기게 되고 하느님 아닌 모든 것에 무능하게 되며 오직 하느님만이 그의 전부가 됩니다. 영혼 안에서 이루시는 성령의 사명은 참으로 거룩하기만 합니다.

829. 성령의 작용 아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자녀가 되도록 맡겨 드리십시오.

830. 성령께서 그대 영혼 안에 자유롭게 일하시도록 맡겨 드리십시오. 그분께서 그대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그대가 타버려야 한다면 타버리십시오. 문제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831. 사랑의 신비가 그대를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성령께 그대의 성화를 맡겨 드리십시오.